



주간 통일정세

2013-08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올해 신조어로 '인민대중제일주의' 부각(2/18,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 김정은 정권이 올해 2년차를 맞아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새로운 표현을 부각해 눈길을 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전함.
 - 지난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1회 생일을 맞아 게재한 사설에서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한평생의 이념은 인민대중제일주의"라며 "아버이 장군님의 사상도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것이고 장군님의 정치도 인민을 위한 인덕정치"라고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주장함.

- **北 김락희 전 부총리 사망...김정은 조화(2/18,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락희(80·여) 전 내각 부총리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18일 전함.
 - "김정은 동지께서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내각 명예참사인 김락희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하였으나 김락희가 언제 사망했는지는 밝히지 않음.

- **北 '핵실험 성공' 경축분위기 지방으로 확산(2/19, 연합뉴스; 노동신문)**
 -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연일 '핵실험 성공'을 부각하며 경축 분위기를 평양에서 지방으로 확산시키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함.
 -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주민들 사이에 각인시키고 대미 적개심도 불어넣어 체제결속력을 한껏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엿보임.

- **北, 핵실험 공로자 평양 초청...'영웅 만들기'(종합)(2/20, 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0일 제3차 핵실험에 기여한 과학자 등을 평양에 초청, 대규모 환영행사를 개최하는 등 이들을 '영웅'으로 치켜세우며 축제분위기 조성 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20일 "제3차 지하핵시험 성공에 공헌한 과학자·기술자·노동자·군인건설자·일꾼들이 오늘 오후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얼굴' 내세운 이상화 본격화(2/20, 연합뉴스; 조선신보)**
 - 북한이 젊은 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얼굴을 활용한 이상화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전함.
 - "조선(북한)에서 김정은 원수님의 영상을 모신 우표가 처음 발행됐다"며 "관계자에 의하면 신년사를 하시는 최고 영도자의 영상을 담은 우표가 발행되는 것은 근 70년에 달하는 조선우표 역사상 이번이 처음 되는 일이라고 한다"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일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0일 밝힘.

- **北 김정은, 핵실험후 첫 軍 시찰...강경대응 과시?(?) (종합)(2/21,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1주일여 만에 올해 첫 군부대 시찰해 나서 그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고 연합뉴스가 21일 전함.
 - 이번 군부대 시찰은 북한이 미국의 '적대정책'에 맞서 핵실험뿐 아니라 "2,3차 대응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 대미·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시선을 끔.
 - 김 제1위원장이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소속 323군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하였으며, 이는 올해 들어 첫 군부대 방문일뿐 아니라 제3차 핵실험 이후 첫 현지시찰로 실제 시찰은 20일 이뤄진 것으로 보임.

- **北 "핵실험은 핵보유국 인정시킨 정치적 승리"(2/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21일 제3차 핵실험에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군인건설자, 일꾼들에게 특별감사문을 전달하는 모임을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전함.
 - 모임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김기남·최태복·박도춘 당비서,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최 총정치국장이 특별감사문을 전달했음.
 - 특별감사문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3호 2호기'의 성과적 발사에 이어 성공적으로 진행된 제3차 지하핵실험은 전략로켓 및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공화국 지위를 국제사회에 확고히 인정시키고 세계 정치구도의 역량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정치군사적 대승리"라고 강조함.

- **北 김정은 연일 軍부대 시찰...실탄사격훈련 지휘(2/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526대연합부대 관할 구분대의 실탄사격이 포함된 공격전술연습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제526대연합부대 구분대의 공격전술연습을 지휘하면서 직접 훈련시작 명령을 내리고 각종 화력무기 사격장면을 참관했으며, 훈련이 끝난뒤 "인민군대에서 얼마 전 진행된 당중앙군



사위원회 정신을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훈련 열풍을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훈련을 통해 실증해줬다"고 말함.

- **北 김정은, 軍 사상교육 간부와 기념촬영(2/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인민무력부 청사의 김일성·김정일 동상 앞에서 '전군당강습지도일꾼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22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번 회의가 첫 당 강습이 시행된 지 35주년을 맞아 열렸다고 "인민군대를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계기로 된다"고 강조함.
 - 또 회의 참가자들은 올해를 '군력강화의 해로 정한 당의 의도를 실현하는 투쟁에서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할 충정의 맹세를 다짐함.
- **北 김정은, 軍비행훈련 지도...3일 연속 부대시찰(2/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630대 연합부대의 비행훈련과 항공육전병강하훈련을 지도했다고 23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인민군대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정신을 군사정치사업에 구현하여 군력강화의 기본인 싸움준비완성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며 "인민군군인들은 적들이 움쩍하기만 하면 다지고 다져온 무진막강한 전투력을 총폭발하여 놈들이 정신을 차릴새 없이 호되게 답새기고(다그치고) 침략의 아성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려야 한다"고 말함.
- **北, 핵실험 유공자 1만1천여명에게 표창(2/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의 성공에 이바지한 1만 1천592명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군인건설자, 일꾼에게 표창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함.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21일 발표한 정령에서 핵실험에 공로를 세운 100명에게 공화국 영웅칭호와 금별메달,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한다고 밝힘.
- **北, 평양서 '전국 3대혁명소조원 열성자회의 개최(2/24, 조선중앙TV)**
 - 북한 조선중앙TV는 24일 "전국 3대혁명소조원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이 오늘 평양에 도착했다"며 조만간 전국 단위의 3대혁명소조원 열성자 회의가 열릴 것임을 예고함.
 - 중앙TV는 "이들(열성자들)의 가슴 마다에는 3대혁명소조운동 발단 40돌이 되는 올해에 전국 3대혁명소조원 열성자회의를 마련해준 당의 뜻을 깊이 새겨안고 3대혁명소조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위업 실현에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가 넘쳐 있었다"고 전함.



■ 김정은동향

- 2/18, 김정은 黨 제1비서, 2.18 故 김락희(최고인민회의 대의원/내각 명예참사) 빈소에 화환 전달(2.18,중통)
- 2/21, 김정은 黨 제1비서, 오중흡7연대칭호를 수여받은 제323군부대 시찰(2.21,중통·중방)
 - 최룡해, 현영철, 김영춘, 황병서, 라청일, 홍영철, 박정천 동행
 - △군부대 직속중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군부대 관하 1대대 3중대와 4대대 5중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 기관총을 선물 및 기념 촬영
- 2/22, 김정은 黨 제1비서, 제526대연합부대 관하 구분대의 실탄사격을 배합한 공격전술연습 지도(2.22,중통·중방)
 - 최룡해, 현영철, 김격식, 리영길, 손철주, 럽철성, 윤동현, 방관복, 윤동희, 황병서, 홍영철 동행
- 2/22, 김정은 黨 제1비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건설장 시찰
 - 최룡해 동행('푸에블로호' 전시할 도크 건설장도 시찰)
 - 김정은 黨 제1비서, 2.19 체육부문 여러 단위에 문화 및 체육·윤전 기재 전달(2.21,중통)
- 2/23, 김정은 黨 제1비서, 항공 및 반항공군·제630대연합부대 비행 훈련과 항공육전병 강하훈련 지도(2.23,중통·중·평방)
 - 최룡해·현영철·김격식·김영춘·리영길·손철주·조경철·윤동현·리병철·최경성·림광원·강기섭·손정남·로흥세·윤정린·최부일·황병서·리청일·홍영철 등 동행
 - 김정은은 이날 저녁 훈련에 참가한 부대 장병들을 평양에 불러 기념촬영
 - 김정은, '전군당강습지도일꾼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인민무력부 김일성-김정일父子 동상 앞)(2.22,중·평방·중통)
 - 최룡해·리병삼·김경옥·황병서·손철주·염철성 등 참가

■ 기타 (대내 정치)

- 최영림(내각총리), 인민군열사묘·국가과학원 잔디연구소 건설정형 및 평양방직기계공장 설비운영실태 현지요해(2.21,중통)
- 北,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신년사 모습 등의 우표(소형전지 1종, 묶음전지 1종, 개별우표 4종) 발행(2.20,중통)
 - 김정일 생일 경축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대표단, 2.20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편지발송(2.21,중방)
- 사회주의경쟁 총화모임, 2.22 리철만(내각 부총리)·리영수(黨 부장)
 - 황민(농업상) 등 참가下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2.22,중통)
 - 삼지강협동농장(黃南 재령군)에 '黨·내각 名義 표창과 2012년 사회주의경쟁순회우승기' 수여



나. 경제

- **北, 올 아리랑 공연 7월27일 개막(2/18, 연합뉴스; 뉴코리아투어스)**
 - 북한의 대규모 집단체조(매스게임) 아리랑 공연의 올해 일정이 확정된 것으로 연합뉴스가 18일 전함.
 - "올해 아리랑 축제와 매스게임의 날짜는 7월27일부터 9월9일까지로 확인됐으며 (공연은) 9월 말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라며 "이 기간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특이하고 화려한 이 공연을 관람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인 '뉴코리아투어스'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함.
- **북한 고려항공, 신형 안토노프 여객기 도입(2/19, 연합뉴스; 인테르팍스 통신)**
 - 북한 고려항공이 우크라이나-러시아제 신형 안토노프 An-148-100 제트 여객기 2대 중 첫 번째 여객기를 인도받았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함.
 -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18일 우크라이나 항공업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 지난 2010년 7월 체결한 계약에 따라 안토노프 여객기가 이달 초 북한에 인도됐다고 보도함.
 - 이 소식통은 "북한과의 계약에 따라 키예프에서 제작 중인 나머지 여객기 한 대는 봄이나 여름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공개함.
- **北 "우주정복상 받자" 경제현장 증산 독려(2/23,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북한이 작년 12월 '광명성 3호 2호기'의 발사를 계기로 상(賞)까지 만들어 주민들의 경제 성과를 독려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전함.
 - 이 상은 작년 12월12일 '광명성 3호 2호기'의 성공적 발사를 기념하는 의미를 담은 '12월12일우주정복상'이며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22일 밤 '실리가 있는 지방산업공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평안남도 안주시의 청천강피복공장을 소개할 때 공장 내부에 세워진 도표를 내보냄.

다. 사회·문화

- **北 "지난해 50여개국 관광객 방북"(2/19,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작년 한 해 동안 세계 50여 개의 나라와 지역의 관광객이 방북했다고 19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관광객 수는 2000년대에 들어 부단히 증가했으며 2009년 이후 급격히 늘었다"면서 "특징적인 것은 유럽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하였지만, 지난해 방북한 관광객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음.
- **北 무상치료 60년 선전...평균수명은 오히려 '퇴보'(2/20, 연합뉴스)**
 - 모든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이른바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는



북한이 체제우월성을 자랑할 때마다 전면에 내세워온 대표적인 사회주의 정책이나, 북한의 이같은 주장은 오히려 주민들의 평균수명이 지난 20년간 상당히 '퇴보'했다는 점을 스스로 확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연합뉴스가 20일 전함.

- **북한 여성들 선택 가능한 헤어스타일은 18개(2/22, 연합뉴스; 데일리메일)**
 - 북한 여성들은 서구의 풍조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가 인가한 적격 헤어 스타일 중 하나만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미녀 스타 제니퍼 애니스톤 처럼 헤어 드라이어로 매만져야 하는 긴 머리 헤어 스타일을 북한에서는 볼 수가 없다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함.
 - 북한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헤어 스타일은 국가의 공식 인가를 받은 18개라고 영국의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은 21일(현지시간) 보도함.

- **北, 외국전문가와 '산간농업' 책자 발간(2/23,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농업학자들이 외국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언덕이나 산에 나무와 작물을 함께 심는 이른바 '산간농업'에 관한 책자를 발간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전함.
 - 책자는 "경사지를 활용한 경작이 북한에서 이미 실용적인 농사법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고 소개함.

2. 대외관계

가. 일반

- **북·중 접경 단둥, 핵실험 이전과 변화없어(2/18, 연합뉴스)**
 -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음력설) 연휴를 마치고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온 18일 중국 내 최대 대북 교역 거점인 라오닝성 단둥(丹東)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전과 다름없는 모습이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전함.
 - 최근 중국 당국이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 움직임이 포착됐지만, 기본적으로 양국 간 교역에는 아직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게 현지 무역상들의 전언임.

- **북·중 접경 관광지, 핵실험에도 관광객 늘어(2/19, 연합뉴스; 신화망)**
 -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에도 이번 춘제(음력설) 연휴 기간 북한과 접경한 중국의 주요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 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함.
 - 춘제 연휴인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백두산(중국 명칭 창바이산·長白山)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은 총 3만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증가했다고 신화망 등이 19일 전함.



- **북한 나선특구에 중국 전력 6월께 공급(2/19, 연변인터넷방송)**
 - 북한과 중국이 공동 개발 중인 북한 나선 경제특구에 오는 6월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력 공급이 시작될 전망이라고 연변인터넷방송이 19일 전함.
 - 두만강 유역의 대북 교역 거점인 지린성 훈춘(琿春)시는 올해 북한에 대한 송전사업을 비롯한 대북 경제협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방송은 전함.
- **중국내 북한식당 여종업원 등 잠적(2/19, 마이니치 신문)**
 - 북한식당 종업원 등으로 중국에서 일하던 북한 여성 2명이 최근 수개월 사이에 잇달아 잠적했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19일 베이징발로 보도함.
 - 신문은 사라진 북한 여성들이 한국 측 브로커나 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북한에 사는 가족과 함께 탈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함.
- **북한, 이번엔 화염씨인 오바마·미군 동영상(2/20,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화염에 휩싸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군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0일 전함.
 - 이 동영상은 '미국의 덕이다'라는 제목으로 3차 핵실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약 1분 30초간 이어지며, 게시자는 '재미교포 푸른누리'로 19일(현지시간) 현재 유튜브 등에 올라있음.
- **미국, 북한인 비자 발급 급감...관계 경색 반영(2/20,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
 - 지난해 미국 정부가 북한인에게 발급한 비자(입국사증)가 100건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 최근 북미관계 경색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연합뉴스가 20일 전함.
 - 1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의 '2012회계연도(2011년 10월~2012년 9월) 비이민 비자 발급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북한인에 대한 비자 발급 건수는 전년도(111건)에 비해 22%나 감소한 87건으로 집계됨.
- **北, 관광객 유치 안간힘...낙시·마라톤도 상품화(종합)(2/20, 연합뉴스; 영파이오니어투어스(YPT))**
 - 북한이 제3차 핵실험 강행 이후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외화 벌이를 위해 새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전함.
 - 올해 4월과 5월 북한에서 마라톤 대회 관광상품과 낙시 관광상품을 각각 선보인다고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둔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Young Pioneer Trous)'가 20일 밝힘.



- **北, 새 유람선 도입...외국인 금강산 관광 사업 박차(2/21,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이 새 유람선을 도입,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금강산 관광 사업에 본격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21일 전함.
 - 함경북도 나진항에서 전날 싱가포르 관광선 '황성호'의 개업식이 열렸고 북한과 중국의 관광분야 관계자들과 나선시 근로자들이 참석했다고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1일 전함.

- **핵실험 후 北 방문 외국인 해외우편물 발송 금지대(2/21, 연합뉴스; NK 뉴스)**
 - 북한이 최근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북한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의 해외 우편물 발송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1일 전함.
 - 핵실험 이후 북한을 방문했던 2개 외국인 관광객 그룹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들었다면서 특히 유럽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이 본국으로 우편엽서를 보내는 것이 금지됐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 매체인 NK뉴스는 21일 밝힘.
 - 유럽 관광객들은 북한인 관광가이드로부터 "최근 도입된 '(대북)제재' 때문에 물자를 발송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함.

- **北, 러시아 공산당대회에 대표단 파견(2/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노동당 대표단이 21일 러시아연방 공산당의 제15차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함.
 - 대표단장은 리영철 당 국제부 부부장이 맡았으며,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북한이 지난 12일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불과 9일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됨.

- **北, 日 정부인사 '다케시마의 날' 행사 참석 비난(2/21,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1일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매년 주최하는 이른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것에 대해 "우리 민족의 영토주권에 대한 엄중한 유린"이라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일본 당국의 노골적인 침략선동' 제목의 논평에서 "얼토당토않은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행사를 연례화 하다 못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 격을 올리려는 것은 일본당국의 노골적인 침략선동"이라며 이같이 밝힘.

- **北, 러시아 공산당대회에 대표단 파견(2/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노동당 대표단이 21일 러시아연방 공산당의 제15차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표단장은 리영철 당 국제부 부부장이 맡았으며,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북한이 지난 12일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불과 9일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됨.

● **북한 나진항에 해상호텔 개업...관광객 유치 주력(2/22, 연합뉴스; 연변신문망)**

- 북한이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늘리기 위해 관광 인프라 확충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함.
- 북한은 최근 함경북도 나선경제무역지구(나선특구) 나진항에 숙박과 해상 관광 기능을 겸한 싱가포르 유람선 '황성(皇星)호'를 유치했다고 중국 연변신문망(延邊新聞網)이 22일 전함.
- 황성호는 길이 138m, 폭 28m의 대형 유람선으로, 총 8개 층으로 이뤄진 배 안에 중·고급 객실과 면세점, 미용실, 주점, 휴게실, 공연식당 등 다양한 서비스 시설을 갖춘.

● **北, 주한 美사령관에 통지문... '키 리졸브' 훈련 비난(종합)(2/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3일 한국과 미국이 내달 진행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연습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것"이라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북한군 박림수 판문점대표부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제임스 서먼 주한미 군사령관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당신측이 끝끝내 '방어적'이요, '연례적'이요 하는 허울을 쓰고 또다시 무모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을 강행하는 것으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들의 시간은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간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美 사이버사령부 규모 확대계획 등 관련 '인터넷 관리에서 차지하고 있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 사이버공간에 대한 패권을 노리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간섭과 선제공격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2.21, 평방/사이버 공간을 어지럽히는 검은 그림자)
- 北 노동당 대표단(리영철 黨 부부장), 2.21 러시아 공산당 제15차대회 참가차 평양 출발(2.21, 중통)
- 北 대표, 2.19 유엔 현장 및 기구역할 강화에 관한 특별위원회 연설에서 '△南 유엔군사령부 해체, △北 3차 핵실험 정당화, △유엔의 자주권 존중과 주권평등 원칙 준수' 주장(2.22, 중방·중통)



나. 6자회담(북핵)

● 조선일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美와 뒷거래" 비난(2/18, 연합뉴스; 조선일보)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각종 국제문제에서 "자기 '국익'을 챙기기 위해 막뒤에서 미국과 흥정하고 있다"고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8일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 신문은 이날 '국제관계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변'이라는 제목의 시론에서 한반도, 중동, 북아프리카 등에서 "미국과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의 침략과 전쟁, 정권 전복과 수탈 등 온갖 국가테러, 국가범죄가 허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 이어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올린데 대해 유엔 안보리가 제재결의를 날조한 것은 유엔 역사상 처음이며 현장 자체의 난폭한 위반이었다"며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도 미국의 압박에 굴복함으로써 유엔 안보리는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을 재증명했다"고 주장함.

● 일본 6자수석 방중...대북제재 협의(2/20, 연합뉴스)

-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강화 문제 협의차 중국을 방문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전함.
- 스기야마 국장은 20일 카운터파트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날 예정이며,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6자회담 참가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중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중국, 북한 핵실험 직후 주민들 건강 위험도 측정(2/20, 중국신문사)

- 중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과 관련, 방사능 오염 여부와 주민들 건강에 미치는 위험도를 측정했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중국 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가 20일 보도함.
-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방사능안전소 소속 측정 전문가 4명은 지난 12일 위생부의 긴급통지를 받고 전용기편으로 지린(吉林)성으로 긴급 출동하여, 북·중 접경지역 2개 현장에서 식품과 식용수 샘플 39개와 20개 조사지점을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 수준을 측정했다고 전함.

● 북한 핵실험장 남쪽 갭도서 움직임 포착..제설흔적(2/20, 연합뉴스; 38노스)

-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곳으로 알려진 함경북도 풍계리의 핵실험장 서쪽 갭도는 큰 변화가 없으나 또 다른 남쪽 갭도 쪽으로 물자의 이동 흔적과 함께 도로와 시설 주변의 제설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위성사진을 통해 드러났다고 연합뉴스가 20일 전함.



- 북한의 3차 핵실험 사흘 뒤인 지난 15일 미국 디지털글로브사의 상업위성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찍은 위성사진을 핵실험 5일 전인 지난 7일에 촬영된 사진과 비교한 결과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부설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전문 온라인 매체 '38노스'는 20일(현지시간) 전함.

● 北 "美 강압에 핵 포기한 국가는 비극적 결과"(2/21,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1일 "미국의 강권과 압력에 눌려 핵을 중도에 포기한 나라들에 비극적 후과(결과)가 차려졌다"며 핵무기 보유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전함.
- "우리(북한)의 선택이 얼마나 선견지명 있고 정당한 것이었는가를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다"며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함.
- 또한, "(이런 사실이) 미국의 핵 공갈에는 타협이나 후퇴가 아니라 실질적 대응조치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우쳐주고 있다"며 "우리가 최후 선택한 것이 바로 '핵에는 핵으로' 대항해야 한다는 전략적 결단"이라고 밝힘.

■ 기타 (6자회담(북핵))

- 日本의 '北 핵실험 관련 추가제재'(총련 부의장 재입국 불허, 조선학교 보조금 중단 등) 움직임을 '과거적악은 청산하지 않은 채 非인도적 악행을 일삼는 日 보수정권은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거듭 비난(2.18, 중통/일본 반동들의 상투적인 반공화국 대결광대극)
-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2.12일자), 2.19 유엔 안보리 공식문건 S/2013/91호로 배포(2.21, 중통)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북한, 유엔 군축회의서 남한 '최종 파괴' 위협(2/19, 연합뉴스)

- 북한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최근의 핵실험 이후 2차, 3차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한국을 "최종 파괴"(final destruction) 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함.
-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전용룡은 이날 회의에서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a new-born puppy knows no fear of a tiger)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한국의 변덕스러운 행동은 최종 파괴를 알릴 뿐"이라고 말함.



- **北 "南 최종파괴" 협박…核그림자 드리워지나(2/20, 연합뉴스)**
 -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이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언급한 대남 위협이 심상치 않게 들린다고 연합뉴스가 20일 전함.
 - 북한 대표는 19일 유엔 산하 다자간 군축협상기구인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최근의 핵실험(3차 핵실험) 이후 2차, 3차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한국을 '최종 파괴'(final destruction) 하겠다고 위협하며,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a new-born puppy knows no fear of a tiger)는 속담까지 인용했다고 함.
- **北, '핵실험 규탄 국회결의문' 접수 거부(2/21, 연합뉴스)**
 -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규탄한 우리 국회의 결의문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21일 전함.
 - 정부는 21일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문'을 국회로부터 전달받아 판문점 남북 연락관을 통해 전달을 시도했으며, 결의문은 강창희 국회의장 명의로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에게 보내는 형식이었으나 북측은 "상부에서 (수령 여부에 대한) 얘기가 없다"면서 접수를 거부함.
- **北 "南, '반핵시위' 조작보도로 北-中 이간질"(종합)(2/22, 연합뉴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22일 "최근 괴뢰역적패당이 우리의 제3차 핵실험을 결코 조중(북중) 관계를 이간질하는 추악한 모략책동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지난 18일 괴뢰TV방송 '모닝뉴스'는 중국에서 우리 핵실험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듯이 날조한 동영상을 방영했다"며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에서 이같이 주장함.
- **北, 李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실명 비난(2/24,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이명박 역도의 저주스러운 집권기간이 드디어 끝장나게 됐다"며 "남조선 인민들을 기만 우롱하며 '대통령' 감투를 쓴 역도가 지난 5년간 저지른 죄악은 실로 엄청나다"고 전함.
 -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간 군사훈련,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3차 핵실험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 등을 거론하며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심화시키고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해치면서 조국통일 위업을 가로막은 것은 반드시 결산해야 할 엄청난 죄악"이라고 주장함.

나. 경제·사회·문화

-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 지난해 역대 최저(2/22, 연합뉴스; 통일백서)**
 - 민간 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가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함.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북한 핵실험장 남쪽 갯도서 움직임 포착..제설흔적>(2/20, 연합뉴스)

-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곳으로 알려진 함경북도 풍계리의 핵실험장 서쪽 갯도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위성사진을 통해 드러났음. 그러나 또 다른 남쪽 갯도 쪽으로 물자의 이동 흔적과 함께 도로와 시설 주변의 제설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부설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전문 온라인 매체 '38노스'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의 3차 핵실험 사흘 뒤인 지난 15일 미국 디지털글로브사의 상업위성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찍은 위성사진을 핵실험 5일 전인 지난 7일에 촬영된 사진과 비교한 결과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함.
- 3차 핵실험이 진행된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 갯도의 입구 주변은 큰 변화가 없었음. 이는 북한이 이번 실험을 지하 갯도를 깊숙이 파서 진행해 지상충격이 그만큼 적었던 것을 말해줌. 또 서쪽 갯도 주변 시설과 입구도 말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외부에 설치됐던 통신장비와 위장막도 철거된 상태였다. 하지만 남쪽 갯도 쪽의 사정은 달랐음. 도로와 시설물 주변에 제설작업이 진행됐으며 물자의 이동 흔적도 보였음. 외곽도로에 쌓인 눈도 치워진 상태였음. 북한이 서쪽 갯도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특히 또 다른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음.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의 풍계리 주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 한편 38노스는 지난 14일에도 디지털글로브가 지난 1월5일 촬영한 위성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동해 로켓 발사장에서 최근 장비 이동 등의 움직임이 포착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음. 38노스는 로켓 발사장내 크레인의 위치가 지난해 10월29일 촬영한 사진 속과 달라지고 발사대 주변의 눈이 치워지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 이와 관련,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제국주의가 핵무기를 잡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잡아야 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면 우리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이에 따라 북한이 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을 경우 미사일 발사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한편, 38노스는 무수단리의 새로운 발사대에 설치된 '플레이임 트랜치(분출가스로부터 로켓을 보호하는 장치)'가 이란의 썬란 발사장에서 쓰인 것과 유사하다고 주장해 이란과의 협력 가능성도 시사했음.



- <北핵실험 제재 놓고 미·일-중·러 시각차>(2/23, 연합뉴스)
 -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제재를 둘러싸고 한반도 주변 4강인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주도국인 4대 강국이 하루 차이로 가진 고위 회담에서 표출된 입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끄.
 - 미국과 일본은 유엔 제재결의와 더불어 추가적인 응징까지 시사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적절한 대응에 나서되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실험에 강력히 대응기로 합의함.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취한 도발적 행동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음. 아베 총리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 등 북한의 행동을 더는 인내할 수 없다"면서 "북한에 강력하게 대응하는데 협조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 두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을 추가 제재하는 방안도 논의.
 -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한다면서도 이를 군사적 개입 등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명분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보였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미일 정상회담에 하루 앞서 가진 모스크바 회담에서 이런 입장을 확인.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 직후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비난받아 마땅하고 유엔 안보리의 합당한 대응이 불가피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간주한다"고 밝힘. 그러면서도 "현재 상황을 한반도에서 현대적 무기(핵무기)나 기타 무기의 경쟁을 촉발하는 데 이용하거나 외부의 군사개입, 6자회담 재개 가능성 차단 등을 위한 명분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역설. 양 외교부장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에) 적합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이 행동에 반대하고 나서야 한다"면서도 "이 같은 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 중국과 러시아는 6자회담이 여전히 한반도 핵문제 논의와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효율적 메커니즘이라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미, 일, 중, 러 등 4국의 이런 입장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각국에서 논의해온 대응방침을 공식 확인해준 것으로 분석됨. 이는 유엔이 현재 추진하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수위 결정과 이후 대응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유엔 사무부총장 "북핵 6자회담 조속히 재개해야">(2/23, 연합뉴스)
 - 얀 엘리아스 유엔 사무부총장은 22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관련국들이 가능한 한 빨리 대화 재개에 나서야 한다"고 밝힘. 중국을 방문 중인 엘리아스 사무부총장은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황의 악화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촉구했음.
 - 엘리아스 사무부총장은 특히 "6자회담이라는 협상수단이 있다"고 강조



하고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주길 매우 희망하고 있다"며 "중국이 현재 북한과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임. 그는 그러나 북한 3차 핵실험에 따른 추가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안보리 소관사항"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음.

- 지난 20일부터 4일간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엘리야슨 사무부총장은 장즈쥘(張志軍)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북핵 문제와 시리아·말리 사태, 개발 문제, 기후변화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음.

나. 미·북 관계

● <北, "美 강압에 핵 포기한 국가는 비극적 결과">(2/21, 연합뉴스)

- 북한은 21일 "미국의 강권과 압력에 눌려 핵을 중도에 포기한 나라들에 비극적 후과(결과)가 차려졌다"며 핵무기 보유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발표한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을 통해 "우리(북한)의 선택이 얼마나 선견지명 있고 정당한 것이었는가를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 후 결국 무너진 리비아 카다피 정권을 간접적으로 거론하며 핵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은 이례적임. 북한은 논평에서 "(이런 사실이) 미국의 핵 공갈에는 타협이나 후퇴가 아니라 실질적 대응조치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우쳐주고 있다"며 "우리가 최후 선택한 것이 바로 '핵에는 핵으로' 대항해야 한다는 전략적 결단"이라고 밝힘.
- 북한은 이어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전쟁 위협이 계속되는 속에서는 대화를 통한 노력도, 국제법에 의거한 노력도 결국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미국이 적대적으로 나온다면 보다 강도 높은 2, 3차 대응으로 연속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 <北, 주한 미사령관에 통지문...'키 리졸브'훈련 비난>(2/23, 연합뉴스)

- 북한은 23일 한국과 미국이 내달 진행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연습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것"이라고 비난했음. 북한군 박림수 판문점대표부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당신측이 끝끝내 '방어적'이요, '연례적'이요 하는 허울을 쓰고 또다시 무모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것으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들의 시간은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간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북한 박 대표는 통지문에서 "당신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정당한 위성발사와 자주권 수호를 위한 지하핵실험을 걸고 들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대조선 고립압살책동으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험악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



다"고 주장했다.

-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미국이 새로운 제재로 군사적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지금 미제 침략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 책동과 군사적 광란으로 조선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전화통지문을 신속히 공개한 것은 북한이 앞으로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연습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됨.
- 한편, 한미 연합군은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유사시 한국 방어를 위한 작전연습인 '키 리졸브' 연습을 벌이고 이번 훈련에는 한국군 1만여 명과 미군 3천 500여명이 참가함. 또 내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한미 연합방어 훈련인 독수리 연습이 시행될 예정. 앞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지난 21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군에 '키 리졸브' 연습 일정을 통보하면서 이번 훈련이 연례적인 한미 연합 연습이라고 밝힘.

다. 중·북 관계

● <중국 '적절한 대북 제재'로 방향 정한 듯>(2/18, 연합뉴스)

- 대북 제재의 실질적 칼자루를 쥐는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이 한국, 미국이 요구하는 강력한 제재 대신 '적절한' 제재를 하자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북한의 3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에서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의향에 반하는 이른바 '물타기'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음.
- 중국 정부는 관영 매체들을 앞세운 여론전을 통해 이런 움직임을 가시화하기 시작함. 사실상 17일까지 이어진 춘제(음력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임. 국무원 직속 기구인 신화통신이 16일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하는 형식의 기사를 통해 강력한 대북 제재 무용론의 운을 띄운 것을 시작으로 유사한 톤의 언론 보도가 잇따랐음. 이는 일련의 보도가 중국 당·정이 숙고해 내린 '정론'임을 시사하는 것임.
- 국제 이슈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8일 사설에서 중국의 입장을 더욱 분명히 피력함. 환구시보는 이날 '중국의 대북 제재에 참여할 때 반드시 적절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음.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징벌해야 하겠지만 그 수위가 한·미·일이 요구하는 대북 제재 수위보다 강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요지임. 사설은 "중국은 조선(북한)의 동맹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에도 능동적으로 이 나라의 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게 중국의 대조선 정책의 마지노선"이라며 "특히 그들(북한)이 핵보유의 문턱에 있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함. 즉, 북한에 일부 원조 축소 등으로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한·미·일과 완전히 같은 편에 서서 북한을 압박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설명



- 입. 환구시보는 중국이 계속 북한과 한·미·일 사이에서 한반도 핵 문제의 조절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촉구함.
- 일각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주장도 나왔음.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메이신위(梅新育) 연구원은 17일 환구시보 기고문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에 잇따라 성공해 군사적·정치적 자원을 갖춘 북한 지도자가 이제 경제 개발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런 흐름에 비춰보면 중국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강력히 응징하는 대신 사실상 '달래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 국·내외 여론의 압박에도 중국 지도부가 이처럼 방향을 정한 것은 강력한 대북 제재 채택으로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경우 한반도 정세 악화가 반복되고 최악의 경우 북한 정권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또한 미국의 동북아 회귀 전략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판에 한 번 발을 들일 경우 향후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했을 것이란 관측도 있음.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북한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큰 벌을 줘서는 안 된다는 중국의 입장이 이번에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미중 간 본격 교섭이 이뤄지면 한미 양국이 마련한 제재 초안에 중국이 물을 많이 타려 할 것"이라고 전망함.
 - 실제로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별다른 대북 압박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2006년, 2009년에 각각 이뤄진 1차, 2차 핵실험 때는 중국이 원유 공급을 일시적으로 끊거나 공급량을 줄이는 등 즉각적인 압박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번에는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음. 한 대북 소식통은 "송유관 운영 중단 등과 같은 중국의 독자적인 대북 압박 조치는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논의 이후까지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아울러 북한이 연내에 4차, 5차 핵실험을 강행하겠다고 중국에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북핵을 둘러싼 긴장 국면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도 중국이 북한에 강경하게 대처할 수 없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함.
 - 그러나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기간에 '대형 폭죽'으로까지 비유되는 핵폭탄을 터뜨린 북한에 대한 중국인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는 점은 계속 중국 정부에 거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라. 일·북 관계

- <北, 日 정부인사 '다케시마의 날' 행사 참석 비난>(2/21, 연합뉴스)
 - 북한은 21일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매년 주최하는 이른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것에 대해 "우리 민족의 영토주권에 대한 엄중한 유린"이라고 비난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일본 당국의 노골적인 침략선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얼토당토않은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행사를 연례화 하다 못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 격을 올리려는 것은 일본당국의 노골적인 침략선동"이라며 이같이 밝힘.
- 논평은 "조선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강탈책동은 세월과 더불어 더욱 교활하게 계단식으로 확대되어왔다"며 "호시탐탐 남의 영토를 노려온 섬 오랑캐 족속의 체질은 세기와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이어 "일본은 영토 강탈에 피눈이 되어 날뛰다가 끝내는 파멸의 구렁텅이에 처박힌 일제의 운명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 러·북 관계

● <러시아총리, 북한 3차 핵실험 "국제법 위반" 비난>(2/22, 연합뉴스)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 국제법을 위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22일 보도. 메드베데프 총리는 브라질 일간지인 오 글로보(O Globo)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이 다른 나라들과 다르지 않다"면서 그 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과 법을 어긴 것으로 한반도 정상화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북한의 그런 행위를 공개적으로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특사로 모스크바를 방문한 모리 요시로(森喜朗) 일본 전(前) 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

● <北, 러시아 공산당대회에 대표단 파견>(2/22, 연합뉴스)

- 북한의 노동당 대표단이 21일 러시아연방 공산당의 제15차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대표단장은 리영철 당 국제부 부부장이 맡았음.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북한이 지난 12일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지 불과 9일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됨.

바. 기 타

● <北, '핵실험 규탄 국회 결의문' 끝내 접수 거부>(2/22, 연합뉴스)

-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규탄한 우리 국회의 결의문 접수를 끝내 거부했음. 통일부는 22일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문'을 전날부터 이틀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이 접수하지 않았다고 밝힘.
- 결의문은 강창희 국회의장 명의로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에게 보내는 형식임. 북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상부에서 (수령 여부에 대



한) 얘기가 없었다"면서 결의문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음. 통일부는 북측이 결의문을 스스로 받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결의문 전달을 더 시도하지 않을 방침. 통일부는 북측의 거부 사항을 이날 국회에도 설명했음.

- 결의문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을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체제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음.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10일에도 발사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외교통상 통일위원회 결의문 접수를 거부한 바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전작권전환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키로>(2/23,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23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음. 양국 국방부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힘. 또한,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이전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이를 계획된 일정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전했음.
-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작권은 2015년 12월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로 전환됨. 일각에서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환경 변화로 전작권 전환 일정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이 핵확산 위협을 증가시킨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견을 무시함으로써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
-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북한의 도발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핵, 미사일 개발시도에 대한 동맹의 즉각적이고 조율된 대응을 논의했다"면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 이어 미국은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방어(MD) 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한국에 제공하는 방위 공약을 재확인. 특히,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핵위기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대응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함. 그러나 국방부는 논의된 맞춤형 억제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한편, 이번 회의에는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제임스 밀러 정책차관, 마크 리퍼트 아태안보차관보,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이 참가했음.



나. 한·중 관계

● <정부 "中에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요청">(2/19, 연합뉴스)

-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논의와 관련, 중국을 설득하는데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했음.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힘.
-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유엔의 추가 제재 논의는 한미 양국의 조기 결의안 채택 방침에도 중국이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음. 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다른 관련국과 다각적 접촉을 통해 엄중한 조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조 대변인은 전함.
- 조 대변인은 안보리 협의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가 돼 안보리 논의가 정리되고 윤곽이 나오는 상황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그는 "가능한 한 조기에, 가능하면 우리 정부가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2월 이내에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힘.

다. 한·일 관계

● <日 독도도발 계속...새 정부 한일관계 '삐걱'>(2/18,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독도 도발을 계속함으로써 출범을 눈앞에 둔 박근혜 정부의 대일관계가 출발부터 삐걱거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오는 22일 시마네(島根)현이 주최하는 이른바 '다케시마(竹島·독도에 대해 일본이 주장하는 자기식 이름)의 날' 행사에 현직 참의원(상원) 의원이자 차관급인 내각부 정부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이 경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 정부 당국자를 보내는 첫 사례가 됨. 이는 시마네현 지방 차원의 행사를 중앙 정부에서 처음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음. 이 때문에 일본 언론 보도대로 중앙정부 인사가 이 행사에 참석할 경우 우리 정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
- 일본은 이달 초 독도문제 등을 다루는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내각관방에 설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힘. 이런 움직임은 다음 주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한일관계 정립에도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임. 한 외교소식통은 18일 "독도를 둘러싼 갈등은 새 정부의 한일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아소 다로 부총리가 참석하는데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함.
- 박 당선인은 한일공조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독도 및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시절부터 양보할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견지해 왔음. 특히 오는 3월 일본 교과서 검정이 예정된 상황이어서 일본의 태도에 따라 한일관계는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있음.



-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베 내각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로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한일관계의 추가 경색 유발을 최대한 피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옴.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아베 내각이 다케시마의 날을 중앙정부 행사로 공식 승격하는 대신 차관급을 보내는 것은 한일관계와 국내 지지층의 비판여론을 모두 의식한 중간적 선택"이라면서 "일본 내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국과 달리 한일관계는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말함.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박근혜 정부와 아베 내각은 협력할 여지와 갈등의 소지가 동시에 잠복한 채 출범하는 셈"이라고 진단함.

● <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정무관 파견, 韓 배려한 결과">(2/19, 연합뉴스)

- 일본의 집권 여당 간사장이 이른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를 중앙 정부 행사로 승격시키는 대신 정무관을 파견하는 것은 "한국을 최대한 배려한 결과"라고 주장함.
- 1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대통령 취임식이 임박하긴 했지만, 우리나라(일본)의 국가 주권에 관한 사항인 만큼 국내적으로 (정부의)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로서는 한국을 최대한 배려했다는 사실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함. 그는 또 "이 일로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 이시바 간사장은 또 시마네(島根)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중앙 정부 행사로 승격시킨다는 자민당의 총선 공약과 관련해 "(2017년 말까지인) 중의원 의원 임기 중에 실현하기 위해 조건을 갖춰나가겠다"고 의욕을 보임.

라. 미·중 관계

● <"시진핑, 러시아 첫 방문은 미국 겨냥한 행보">(IHT)<(2/22,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러시아를 선택한 것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전략을 겨냥한 행보라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이 22일 보도. 신문은 시 총서기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주석에 오른 뒤 내달 26~27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제5차 브릭스(BRICS) 정상회담 참석에 앞서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를 미국에 대한 견제로 해석했음.
- 중국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런 아시아 중시 전략을 중국 봉쇄론과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힐러리 클린턴 전(前) 미 국무장관과는 달리 존 케리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유럽과 중동을 택하기는 했지만 집권 2기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전략엔 변화가 없을 것



- 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시 총서기가 러시아를 중국의 최우선 외교 대상으로 부각시켜 미국을 긴장시키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IHT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도 러시아를 첫 방문국으로 선택했던 전례가 있지만 시 총서기 역시 러시아를 가장 먼저 찾는 건 작금의 '업헨' 미중 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중국의 핵심이익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의 남중국해 분쟁, 일본과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갈등에서 미국이 반기를 들어왔고, 최근엔 미중 간에 해킹 다툼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시 총서기의 러시아 행(行)이 결정된 점에 주목
 - 진찬룽(金燦榮)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희망한다"며 무엇보다 일본과의 영토 갈등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푸틴 대통령도 취임 후 미국을 가장 먼저 방문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이웃인 벨라루스에 이어 중국을 방문국으로 선택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산 적이 있음. 당시 푸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에서 G8(주요 8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받았지만 '조각(細關)'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불참하고 나서 중국을 방문. 오바마 미 행정부가 러시아 야권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을 강화한 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해석됨. 이 때문에 시 총서기의 이번 러시아 방문으로 '중국·러시아 대(對) 미국' 구도가 짜여 미국의 대외정책에 어려움이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 IHT는 중국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에선 묵은 과제인 가스 공급 협상 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이 있고 북한, 시리아, 이란 문제 등 주요 국제 이슈를 위한 '공조'가 확대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미국의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신문은 미중 간의 이런 냉기류를 정상회담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시 총서기가 이른 시기에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신문은 시 총서기가 국가주석에 오르면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오는 9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 이전에 대면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음.

마. 미·일 관계

- <아베 "일본이 돌아왔다" 선언..거침없는 행보>(2/22, 연합뉴스)
 - 미국을 방문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가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특별강연에서 "일본이 돌아왔다(Japan is Back)"고 선언했음.
 - 아베 총리는 "일본은 지역국가로 머물 수 없다"는 말로 화두를 전개하면서 "내가 (다시 총리로) 돌아온 것처럼 일본도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아베는 자신이 주도하는 일본의 3대 지향점을 제시했음. 첫째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위해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



하고, 이어 국제적 단결을 위해 일본이 수호자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 그리고 일본은 앞으로 미국과 한국, 호주 등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음.

- 아베 총리는 아시아 지역이 갈수록 변영하는 가운데 북한만이 예외라고 지적. 북한의 핵야망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하면서 북한 문제는 지역을 넘어 국제적 현안임도 강조했다. 일본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유엔 등과 함께 북한의 야망을 중단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양복 상의에 부착한 파란 리본을 가리키며 북한이 1970년대와 80년대 납치해간 일본인을 반드시 송환시키도록 하겠다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음. 13세 때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메구미 요코타를 언급할 때는 비장한 표정을 짓기도 했음.
- 한편, 아베 총리는 다시 총리가 된 만큼 일본경제의 부흥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구상대로 일본의 경제가 성장하면 일본은 더 많이 수출하고 수입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설명. 그는 일본의 수출 증가로 인해 "미국이 첫 번째 수혜자가 될 것이고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도 혜택을 볼 것"이라고 언급.
- 아울러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 언급하면서 "역사는 센카쿠 열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말해준다. 지금이나 미래에 있어 어떠한 도전도 용인할 수 없다"고 중국을 겨냥했음. 아베 총리는 영유권 분쟁으로 인한 긴장을 고조시키고 싶은 의도는 없다고 부연하면서, 그는 "일본과 중국은 상호 도움을 주는 전략적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아베 총리는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음. 그는 "두 나라가 지난 세월 개척해온 관계는 놀랄만하다"고 강조하면서 "나의 임무는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고 일본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일본은 돌아왔다"고 재확인했음.
- 한편,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음. 그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도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미국이 중국에 대해 압박하는 것처럼 국제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중국을 견제했음.

○ <미일 정상, TPP협상 개시에 의견접근>(2/22, 로이터통신)

- 미국과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알려진 미국주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곧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지난 금요일 합의하였음.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 따른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일본이 미국을 비롯한 관련 10개국과의 협상에 참여한다면 모든 상품이 협상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음. 동시에 이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고 일본은 쌀과 같은 일본산 농산물의 보호를 유지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음.



- 양국 정부는 이 성명서에서 "일본산 농산물과 미국산 자동차 등과 같이 양자 간 무역의 민감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최종결과는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고 TPP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모든 관세의 철폐를 일방적으로 강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오바마-아베 첫 정상회담...>"미·일 동맹 부활"(2/22,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현지 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 동맹의 '복원'을 과시했음. 지난 3년간 일본 민주당 집권 당시 다소 소원했던 것으로 평가된 미·일관계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부활'을 알림에 따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이번 회담은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권력교체가 이뤄지거나 진행중인 상황에서 처음으로 열린 정상간 회동이라는 점에서 애초부터 주목됐음.
- 오바마 대통령은 정오 직전부터 가진 백악관 집무실 회담 후 연 기자회견에서 "많은 안보 이슈에 대해 폭넓고 긴밀한 협의를 했다"면서 "미·일 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에서 중심적인 기초"라며 아베 총리 취임이후 달라질 미·일 관계를 약속했음.
- 아베 총리도 "미·일동맹의 신뢰와 강한 연대감이 완전히 부활했다고 자신있게 선언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조기 방일을 요청했음.
- 두 정상은 최근 현안인 북핵 문제에 있어 강력한 대응을 결의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취한 도발적 행동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힘. 이에 아베 총리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 등 북한의 행동을 더는 인내할 수 없다"면서 "북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데 협조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 아베 총리는 또 유엔의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자행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 아베 총리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 "늘 이 문제를 조용하고도 침착하게 다뤄왔다"면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행동할 것"이라며 외교적 해결 노력을 강조
- 외교 관측통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일 안보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 하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적절한 선에서 신중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보고 있음. 미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대한 일본의 참여방안도 가닥을 잡았음.
- 아베 총리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상당 수준 확보했음. 아베 총리는 또 일본 내부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기 위해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설명
- 한편, 양국은 오키나와(沖縄)현의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 이전을 조기에 추진한다는 미·일 합의사항을 재확인했음.



바. 미·러 관계

● <미 케리 국무, 러 외무와 마침내 전화통화>(2/18,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가짐. 케리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약 30분 간에 걸쳐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방안과 시리아 사태 등 양자 현안을 논의했다고 양국 외교당국 대변인이 밝힘. 이로써 북한 핵실험 이후 두 장관의 '전화불통'으로 빚어진 외교적 논란이 일단락됨. 케리 장관은 12일 핵실험 직후 라브로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라브로프 측이 일주일 가까이 '콜백'(call-back)하지 않아 외교적 냉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음.
- 양국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핵실험 대응방안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신속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또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는 '실현가능한 정치적 전환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각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양국은 러시아가 알아사드 현 시리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반면 미국은 알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반군을 지원하면서 갈등을 빚어왔음. 두 장관은 시리아 모든 당사자가 폭력을 중단하고 정부와 반군 간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중점을 두면서 시리아 사태 해법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밝힘.
- 특히 케리 장관은 지난 2년간 7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된 시리아의 유혈사태를 막는 것이 시급하고 시리아인들이 극단주의를 저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빅토리아 놀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전함. 이와 관련해 18일(현지시간) 유엔에서는 시리아의 최근 인권상황을 정리한 패널 리포트가 나올 예정이며 같은 날 유럽연합(EU) 외교장관들도 3월1일로 종료되는 대(對) 시리아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모일 계획임. 한편, 두 장관은 앞으로 수 주 내에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갖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기로 함.

사. 중·일 관계

● <“중국군, 3년 사이 8차례 일본 군함 등 위협”>(2/19, 연합뉴스)

- 일본 중국군이 최근 논란이 된 사격용 레이더 조사(照射) 사건 외에도 수차례 일본 군함과 군용기 등을 상대로 레이더를 겨냥하는 위협을 가했다고 일본 매체가 보도. 19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일본 잡지 주간 포스트는 최신호에서 중국 측이 2010년 이후 최근 3년간 모두 8차례 일본 자위대 함정과 초계기 등을 상대로 '도발'했다고 전했음.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논란이 거셌던 지난해에만 3차례 관련 사건이 발생
- 지난해 4월 일본 자위대 해상초계기(P-3C)가 센카쿠 근해에서 경계활동을 펼 당시 중국 군함이 경고 목적으로 레이더를 비추 일시 긴장감이 고조됐다고 일본 매체는 주장했음. 같은 해 8월과 9월에도 각각 일본



호위함이 동중국해에서 중국 함정의 '레이더 위협'을 받았음. 그러나 일본 측은 센카쿠 국유화를 둘러싸고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았다고 주간 포스트는 설명했다.

- 이보다 앞서 2010년 4월에는 한 달 사이에 세 차례 유사 사건이 있었음. 중국군 헬기가 일본 호위함에 수십 미터 거리로 접근하거나 일본 함정 상공을 선회하며 긴장을 조성했으며, 중국 함정에 배치된 포(砲)가 일본 해상초계기를 조준하기도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 일본이 최근 중국 군함이 센카쿠 근해에서 지난달 19일과 30일 각각 일본 자위대 헬리콥터와 함정에 한 차례씩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발표하자 중국은 "레이더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맞서는 등 양국은 '진실공방'을 벌였음. 중국 측은 일본 주간지의 이번 보도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음. 다만 중국군 내 강경파로 통하는 뤼위안(羅援) 중국군사과학원 세계군사연구부 부부장은 "일본 군함이 동중국해에서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중국 함정을 뒤쫓는다면 반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

● <中, 아베 日총리 발언 관련 명백한 규명 요구>(2/22, 인민일보)

- 아베 총리는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미국 측과 양국 간 동맹 관계 강화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협상 전제조건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미국 방문길 전에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일삼았음. 이에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강력한 반박에 나서며 중국은 일본 측에 즉각 명백한 규명을 엄숙히 요구했다고 밝힘.
- 아베 신조 총리가 미국 방문길에 오르기 전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이 일본과 기타 아시아 이웃국가 간에 벌어지는 충돌은 중국의 고질적인 요구 때문으로 이는 자국의 정치적 지지를 공고히 하는 데 있으며 일본은 중국의 '타국 영토 수탈'을 막을 것이라고 밝힘. 이에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일본 총리의 관련 발언에 대한 즉각적인 규명을 엄숙히 요구함.
- 홍 대변인은 "중국은 관련 보도 내용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일국의 지도자가 이처럼 이웃국가를 공공연하게 비방하고 공격해 지역국가 간 대립을 선동하는 일은 찾아볼 수 없는 일이자 국제사회의 인심을 잃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은 일본과의 전략적 호혜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일본이 중국 영토, 역사와 관련하여 중국의 외교정책을 비방하는 문제에서는 절대적으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일본 측에 이미 명백한 규명을 엄숙하게 요구했다."고 밝혔음.
-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의 렌더구이(廉德瑰) 부주임은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은 서양 측에 고해바치는 행태로 생각을 흐리게 해 미국 여론을 통해 일본의 외교적 '난국'을 주목하게 하고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속셈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침략 역사에



대해 단 한 번도 반성한 적이 없으며 군국주의적 전쟁을 통한 국내 문제 전환 수법으로 중국을 공격하는 것은 소인배에 지나지 않는 짓이다"라며, "아베 총리는 이번 중일 간 닌오위다오 분쟁을 더욱 부추긴 당사자이자 수혜자로 아베 총리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조선, 한국과 영토, 역사적 충돌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지지'를 공고히 했다."고 지적했음. 덧붙여 "흑과 백이 뒤바뀌고 악인이 고발을 하는 이 같은 행위는 결국엔 중일 관계 및 지역 평화를 깨뜨리며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 중·러 관계

● <“러시아-중국, 대북 군사개입·군비경쟁에 반대”>(2/22, 연합뉴스)

-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반대하지만 이번 사건이 한반도 지역 군비경쟁이나 이 지역에 대한 군사개입의 명분으로 이용되서는 안 된다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고 양국 외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밝힘.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모스크바 시내 외교부 관저에서 회담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참여화한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한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은 같다"면서 이같이 소개
-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비난받아 마땅하고 유엔 안보리의 합당한 대응이 불가피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간주한다"고 지적했음. 그는 그러면서도 "현재 상황을 한반도 지역에서 현대적 무기(핵무기)나 기타 무기의 경쟁을 촉발하는데 이용하거나 (북한에 대한) 외부의 군사개입 혹은 6자회담 재개 가능성 차단 등을 위한 명분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
- 뒤이어 발언에 나선 양 외무장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적합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이 행동에 반대해서 나서야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향한 것 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모든 이해 당사국이 이러한 태도로 문제해결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양 부장은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6자회담이 여전히 한반도 핵문제 논의와 해결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과 평온을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 메커니즘이라고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태 지역의 모든 국가가 서로에 대한 존중심을 갖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양국 외무장관은 또 이날 회담에서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브로프 장관은 하루 전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발생한 테러와 관련 자국이 제안한 유엔 안보리 비난 성명을 미국이 저지한 데 대해 불만을 표시. 라브로프는 "우리는 미국의 행동을 이중잣대의 표현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행동에서 미국 동료들이 모든 테러를 조건없이 비난한다는 기본원칙에서 벗어나려는 위험한 경향을 본다"고 지적했음.



양 부장도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테러를 비난한다"며 "중국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시리아 문제에 대한 편견없는 태도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제안한 다마스쿠스 테러 비난 성명을 지지한 미국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임.

- 21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도심의 집권당 당사 인근에서 대규모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53명이 사망. 이와 관련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며 정당화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비난성명 채택을 제안했으나 미국의 거부로 무산됐음.
- 한편, 러시아와 중국 외무장관은 뒤이어 양국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 두 나라가 유례없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족감을 표시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힘. 양 외교부장은 "지난해 중-러 양국 교역규모가 800억 달러를 넘어섰다"며 "올해 말까지 교역량을 1천억 달러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양국의 과제이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 일·러 관계

● <일본 아베 총리, 4월 말 방러 추진>(2/23, 연합뉴스)

-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미국에 이어 러시아를 방문할 전망 이어서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문제를 논의할지 주목됨. 2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세르게이 나리슈킨 러시아 하원 의장은 22일 모스크바에서 모리 요시로(森喜朗) 일본 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모리 씨의 (러시아) 방문은 4월 말로 예정된 아베 총리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아베 총리는 모리 전 총리를 러시아에 특사로 보내 4월 방러를 추진해왔 음. 일본 언론은 나리슈킨 의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을 들어 '4월 말'이라는 방러 시점에 푸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추측. 아베 총리는 러시아 방문시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중 일부를 돌려받고 러일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푸틴 대통령과 논의할 가능성이 있음.
- 모리 전 총리는 21일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 이 문제를 사전 조정했고, 22일 모스크바국제대학 강연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자신에게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는 일이 없는 해결책"을 언급했다며 러일 양국이 섬 2~3개 반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시사했음.
- 한편, 러시아는 최근 일본에 극동 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3일 보도. 푸틴 대통령은 21일 모리 전 총리에게 조만간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부 장관을 일본에 보내겠다고 언급했고,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국영 로스네프티사 사장인 이고리 세친은 최근 일본을 방문해 오후츠크해 마카단 대륙붕 개발 참가를 요청했음. 러시아는 미국산 셰일가스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 자국산 천연가스의 점유율



이 떨어지자 수입국이 중국에 편중되는 것을 우려, 일본 등지에 추파를 보내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음.

차. 기 타

- <대만 총통 "다오위다오 중국과 공동대응 안한다">(2/19, 연합뉴스)
 -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중국, 일본 간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배제함.
 - 19일 자유시보에 따르면 마 총통은 전날 타이베이에서 열린 집권 국민당 주최 기업인 초청 행사에서 "양안이 다오위다오 문제를 둘러싸고 손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그는 대만과 일본이 1952년 체결한 중·일 평화조약을 중국이 인정하지 않는 상황을 먼저 이유로 들었음. 이 조약은 대만의 주권이 중화민국(대만의 공식 국호)에 귀속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
 - 마 총통은 자신이 주창한 센카쿠 일대에 대한 주변국의 공동 자원개발을 골자로 하는 '동중국해 평화선언'에 중국이 반응하지 않고 있는 점, 중국이 대만과 일본의 어업회담에서 센카쿠 주권문제가 논의되는 것에 반대하는 점 등도 이유로 꼽았음. 마 총통은 "주권 문제에 대한 논의 없이 어떻게 어업권을 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함. 그는 센카쿠 영유권에 대해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냈음.
- <中, '比측 남중국해 분쟁안 국제기구 제출' 반대 표해>(2/21, 인민일보)
 -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필리핀 측의 남중국해 분쟁안 국제중재기구 제출을 분명하게 반대한다"라고 밝힘.
 - 중국이 필리핀 측의 상기 통보를 인정하지 않고 돌려보낸 이후, 필리핀 외교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중국을 겨냥해 계속해서 국제중재기구 제출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이에 홍 대변인은 "필리핀과 중국은 '남중국해 각국 행위선언' 체결국으로 '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 중국은 필리핀 외교부의 국제중재기구 제출안에 찬성할 수 없으며 이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밝힘.
 - 중국 홍 대변인은 또한 "중국은 현재 이 지역 대다수 국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화의 틀을 유지해 나가며 계속해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변함없이 국가의 주권과 권익을 수호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함.